

상장 여행사의 재무비율 비교분석

노미현(김포대학교)

차 례

1. 서론
2. 국내 여행업의 현황
3. 상장 여행사의 재무비율 분석
4. 결론

1. 서론

여행사 경영자는 여행사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행사의 경영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한다. 여행사 경영에는 채권자, 관광객, 여행사경영자, 직원, 관광관련업체, 관광관련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 데 이들 중에는 채권자와 관광객 등의 외부 정보이용자 보다는 내부 정보이용자인 경영자의 관심이 가장 크며, 여행사 재무분석은 여행사 경영자의 경영의사결정에 특히 중요하다. 여행사의 재무비율 분석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수익성은 기업이 일정기간 수익을 얻지 못하면 어느 시점을 지나면 자체적으로 기업생존이 불가능해지므로 수익성은 여행사에 있어서 생명적 혈액공급과 같은 것으로 가장 중요하다. 안정성은 금융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무유동성이 떨어지면 기업이 즉각 도산에 직면하게 되므로 안정성 분석 역시 매우 중시되고 있다[1][5].

여행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영진(2004)은 국내 최대여행사인 H여행사의 재무제표 분석 및 재무비율 분석을 실시하여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였으며[1], 도미경(2005)은 여행업체를 IN-BOUND와 OUT-BOUND로 분류하여 그 경영성과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재무제표의 비율분석을 통해 밝힘으로서 여행사의 재무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2]. 양승필(2006)은 외부감사대상인 서울지역 일반 여행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경영분석을 실시하여, 활동성,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측면의 경영지표가 갖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4], 이교영과 유희경(2011)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여행사 매출수익인식에 따른 총액주의와 순액주의를 비교하고, 18개 주요 여행사의 매출수익을 분석하여 회계처리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6].

본 연구는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여행사를 대상으로 상장 여행사별 경영성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측면의 재무비율 분석을 통해 재무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상장 여행사 정보이용자들이 상장 여행사별 재무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고 여행사별 재무적 현황을 비교 검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국내 여행업의 현황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으로 구분된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며, 국외여행업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한다.

여행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 4조에 의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통계청의 e-나라지표 사이트에서 제공된 여행업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9,623개에서, 2007년 10,681개, 2009년 11,968개로 계속 증가하여 2011년 12월 기준 통계자료는 13,289개로 집계되었다. 2011년 13,289개 여행업체 중 국외여행업은 6,767개(50.9%), 국내여행업은 4,888개(36.8%), 일반여행업은 1,634개(12.3%)였다[8].

한국여행업 협회에서는 여행사의 실적을 내국인승객실적, 외국인 유치실적, 항공권판매실적으로 구분하여 상위 20위 까지의 인원별, 금액별 순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1].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행업 협회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위 5위까지의 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표 1>에서 <표 3>까지 제시한다.

내국인 승객실적을 보면, 2012년 금액 상위 5위 업체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좋은레저, 온라인투어 순으로 나타났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인원별 순위도 각각 1, 2위로 나타났다. 상위 5개 기업이 여행업 전체 합계 금액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외국인 유치실적 금액 상위 5개 여행사는 에치아이에스코리아,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체스투어즈, 전국관광 순으로 나타났다. 에치아이에스코리아는 금액별, 인원별 순위에서 모두 1위였으며, 한진관광은 인원별로는 2위, 롯데제이티비는 3위로 나타났다.

표 1. 내국인 승객실적(금액) 상위 5개 여행사 (2012년)

순위	업체명	금액(천원)	인원(명)
1	하나투어	1,575,586,000	1,595,267
2	모두투어 네트워크	909,920,669	876,093
3	노랑풍선	213,311,988	230,346
4	참좋은레저	198,537,053	175,075
5	온라인투어	192,497,033	238,271
소계(1위~5위)		3,089,852,743(76%)	3,115,052(74%)
여행업 전체합계		4,073,265,037	4,181,534

표 2. 외국인 유치실적(금액) 상위 5개 여행사 (2012년)

순위	업체명	금액(\$)	인원(명)
1	에치아이에스코리아	51,374,431	276,280
2	롯데 제이티비	49,092,407	159,156
3	한진관광	39,479,693	217,534
4	체스투어즈	36,852,024	111,055
5	전국관광	35,400,166	121,607
소계(1위~5위)		212,198,721(25%)	885,632(21%)
여행업 전체합계		865,537,706	4,297,143

표 3. 항공권 판매실적(금액) 상위 5개 여행사 (2012년)

순위	업체명	금액(천원)	인원(명)
1	하나투어	2,104,485,000	2,273,528
2	모두투어 네트워크	677,112,572	1,218,229
3	인터파크 아이엔티	520,903,536	685,754
4	세종	465,652,233	350,489
5	레드캡투어	285,574,565	239,706
소계(1위~5위)		4,053,727,906(65%)	4,767,706(61%)
여행업 전체합계		6,209,557,583	7,833,825

2012년 항공권 판매실적 금액 상위 5개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아이엔티, 세종, 레드캡투어로 나타났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아이엔티는 인원별 순위도 1, 2, 3위를 기록하였다. <표 3>을 보면 상위 5개 여행사 금액이 여행업 전체합계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3. 상장 여행사의 재무비율 분석

3.1 자료수집 및 재무비율 선정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KRS) 사이트 메뉴 중 '상장/공시의 상장현황' 메뉴에서 업종이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업종코드: 147502)'으로 분류된 6개의 기업을 표본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9]. 표본 여행사 중 하나투어와 롯데관광개발은 코스피 시장에, 모두투어, 세종, 레드캡투어, SM C&C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다.

상장 여행사의 재무비율 자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이트의 상장회사 정보 중 기업분석리포트 메뉴에서 제공되는 개별기업분석 자료를 상장 여행사별로 검색하여 발췌하였다[10].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¹⁾ <표 4>를 보면 표본 여행사 중 2012년도 K-IFRS(별도)와 K-IFRS(연결) 재무제표 모두에서 하나투어의 매출액과 자본총계 규모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무비율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투자지표 중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지표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재무지표 중 대표적 지표인 수익성은 기업의 총괄적인 경영성과와 이익창출능력을 보여준다. 안정성 지표는 기업의 단기채무상환능력 및 타인자본의존도인 장기지급능력을 나타내며, 활동성은 기업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 정도를 보여준다[3]. 재무지표별 재무비율 및 산식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1) K-IFRS에서는 개별재무제표만 공시했던 기존과는 달리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K-IFRS 연결재무제표는 연결 대상 회사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K-IFRS 별도(개별)재무제표와 K-IFRS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재무비율을 각각 제시한다.

표 4. 표본 여행사의 현황 (2012년, 억원)

여행사	상장 구분	K-IFRS(별도)		K-IFRS(연결)	
		매출액	자본 총계	매출액	자본 총계
하나투어	코스피	2591.76	1528.47	3078.54	1625.10
모두투어	코스닥	1327.87	819.38	1378.90	829.71
롯데관광개발	코스피	410.50	508.38	573.11	519.02
세종	코스닥	809.05	586.12	2069.32	646.84
레드캡투어	코스닥	1558.28	1038.24	1565.35	1038.67
SM C&C	코스닥	165.83	339.59	195.52	371.27
표본 여행사 업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표 5. 재무지표별 재무비율 산식

지표	재무비율	산식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
	자기자본 순이익률	당기순이익/(전기자본총계 + 당기자본총계)/2
	총자산 순이익률	당기순이익/(전기자산총계 + 당기자산총계)/2
안정성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당좌비율	당좌자산/유동부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활동성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전기자산총계 + 당기자산총계)/2
	매출채권 회전율	매출액/(자기매출채권평균액 + 매출채권평균액)

3.2 재무비율 분석 결과

1) 수익성 분석

수익성은 기업의 총괄적인 경영성과와 이익창출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지표로 선행연구에서는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금융비용 대 매출액 비율 등이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다[1][4][7]. 본 연구에서는 수익성 지표의 비율로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ROE)과 총자산순이익률(ROA)을 이용하였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영업이익률은 2012년 영업손실이 발생한 SM C&C(K-IFRS(별도):-5.19, K-IFRS(연결):-13.12)를 제외한 모든 여행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정(+)의 비율을 보였다. 2011년에는 레드캡투어의 매출액영업이익률(21.14, 21.06)이, 2012년에는 모두투어의 매출액영업이익률(15.93, 15.42)이 가장 높았다. 롯데관광개발은 타 여행사에 비해 매우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였을뿐 아니라, 영업외비용

과다 등으로 인한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전년도에 비해 2012년에 훨씬 더 악화된 경영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SM C&C도 2011년에는 정(+)의 매출액순이익률을 보였으나 2012년에는 경영성과가 매우 악화된 음(-)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6>의 K-IFRS 별도재무제표에 의한 재무비율을 보면, 기업소유주가 공급한 자본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2011년에는 레드캡투어(22.16)와 모두투어(19.35)가 높았으며, 2012년에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22%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전년도에 비해 2012년 ROA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레드캡투어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비율을 보였다. 총자산순이익률은 2011년에는 모두투어(15.23)가 2012년에는 하나투어(10.94)가 가장 높았다. 하나투어는 전년도 8.34%에 비해 2012년도에는 10.94%로 증가하여 2012년도에 총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영성과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상장 여행사의 수익성 비율

재무비율	여행사	IFRS(별도)		IFRS(연결)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매출액 영업 이익률	하나투어	9.57	13.40	8.95	12.86
	모두투어	13.74	15.93	12.93	15.42
	롯데관광개발	0.02	0.78	1.59	2.05
	세종	12.28	13.16	8.67	8.62
	레드캡투어	21.14	15.27	21.06	15.25
	SM C&C	15.07	-5.19	7.52	-13.12
매출액 순이익률	하나투어	8.62	11.56	8.00	12.15
	모두투어	10.95	13.00	11.04	12.80
	롯데관광개발	-24.07	-88.22	-18.02	-62.33
	세종	7.91	9.57	5.52	6.23
	레드캡투어	13.89	9.57	13.83	9.66
	SM C&C	6.60	-63.21	2.19	-65.52
자기자본 순이익률 (ROE)	하나투어	17.56	22.67	18.54	25.33
	모두투어	19.35	22.55	-	-
	롯데관광개발	-11.39	-52.27	-	-51.03
	세종	13.08	13.99	17.16	18.90
	레드캡투어	22.16	14.99	-	15.21
	SM C&C	4.84	-36.04	2.88	-46.11
총자산 순이익률 (ROA)	하나투어	8.34	10.94	8.18	11.53
	모두투어	15.23	10.47	-	-
	롯데관광개발	-5.07	-1800	-	-17.33
	세종	6.37	7.55	8.29	9.46
	레드캡투어	9.47	6.65	-	6.72
	SM C&C	3.20	-28.19	1.23	-32.50

2) 안정성 분석

안정성 비율은 기업의 단기채무 상환능력과 장기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준다. <표 7>에서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기업의 단기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상적 기준은 유동비율이 200%, 당좌비율은 100% 이상이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SM C&C의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K-IFRS(별도)와 K-IFRS(연결) 모두에서 100% 이상이였으며, 특히 모두투어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모두 200% 이상으로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관광개발과 레드캡투어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모두 50% 이하로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표 7. 상장 여행사의 안정성 비율

재무비율	여행사	IFRS(별도)		IFRS(연결)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유동비율	하나투어	120.89	133.44	147.04	165.94
	모두투어	215.52	208.59	213.74	210.36
	롯데관광개발	19.90	12.17	22.93	15.50
	세종	96.31	93.87	124.74	127.76
	레드캡투어	32.26	34.44	33.67	35.15
	SM C&C	116.78	267.73	125.21	242.77
당좌비율	하나투어	120.89	133.44	146.82	165.71
	모두투어	215.52	208.59	213.74	210.26
	롯데관광개발	19.90	12.17	22.93	15.50
	세종	96.06	93.46	112.64	113.98
	레드캡투어	32.26	34.44	33.67	35.15
	SM C&C	116.78	267.73	125.21	242.77
부채비율	하나투어	122.18	96.50	125.30	96.03
	모두투어	81.40	74.92	84.54	76.69
	롯데관광개발	150.81	258.62	149.81	251.49
	세종	92.78	78.86	105.16	95.51
	레드캡투어	136.21	115.72	137.32	116.70
	SM C&C	32.35	25.83	59.00	34.63

기업의 장기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은 낮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이다. 모두투어와 SM C&C의 부채비율은 K-IFRS(별도)와 K-IFRS(연결) 모두에서 100% 이하로 나타나, 타 여행사에 비해 타인자본의존도가 낮아 장기채무 상환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2011년 K-IFRS(연결)에서 100% 이상이였으나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00% 이하로 장기채무 상환능력이 개선되었다. 특히 롯데관광개발은 전년도에 비해 2012년 부채비율이 200% 이상으로 높아져 재무위험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활동성 분석

활동성 지표는 기업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매출액을 각 자산으로 나누어 구하며, 일반적으로 회전율로 표시된다. <표 8>에서 활동성 지표로 총자산회전율과 매출채권회전율이 제시되어 있다.

표 8. 상장 여행사의 활동성 비율

재무비율	여행사	IFRS(별도)		IFRS(연결)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총자산회전율	하나투어	0.97	0.5	1.02	0.95
	모두투어	0.96	0.98	-	0.97
	롯데관광개발	0.21	0.20	-	0.28
	세종	0.81	0.79	1.50	1.52
	레드캡투어	0.68	0.69	-	0.69
	SM C&C	0.48	0.45	0.56	0.50
매출채권회전율	하나투어	8.67	7.90	8.28	7.35
	모두투어	9.57	9.05	-	6.52
	롯데관광개발	158.60	101.11	-	27.61
	세종	8.37	8.24	8.26	8.80
	레드캡투어	16.19	17.97	-	16.73
	SM C&C	4.76	5.66	3.19	4.33

총자산회전율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회전율이 높으면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뜻이며, 낮으면 과대투자나 비효율적 투자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본 여행사의 재무비율이 모두 표시된 K-IFRS(별도)를 보면 모두투어가 0.96 이상으로 2개년 모두 총자산을 타 여행사에 비해 효율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관광개발과 SM C&C는 총자산회전율이 0.5 이하로 비효율적으로 총자산이 활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은 영업활동 순환과정의 단계 중 재고자산이 매출되어 매출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자금이 묶이는 정도를 보여주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채권회전율은 K-IFRS(별도)에서 롯데관광개발이 100회 이상으로 타 여행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회전율을 보였다. 이는 롯데관광개발의 매출채권 금액이 극히 작았기 때문으로, 매출액 대부분이 현금매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레드캡투어의 매출채권회전율이 10회전 이상으로 타 여행사에 비해 매출채권의 자금회전율이 양호했으며, SM C&C는 6회전 이하로 매출

채권의 현금화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상장기업 여행을 대상으로 상장 여행사별 경영성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측면의 재무비율 분석을 통해 상장여행사별 재무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2012년 K-IFRS(별도)를 기준으로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비율을 요약하기로 한다. 기업의 총괄적인 경영성과와 이익창출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비율 중 매출액영업이익율은 모두투어, 레드캡투어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순이익율은 모두투어, 하나투어 순으로, 자기자본순이익율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순으로, 총자산순이익율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순으로 수익성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롯데관광개발과 SM C&C의 수익성 지표는 거의 모든 비율에서 음수(-)의 비율을 보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단기채무 상환능력과 장기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안정성 비율 중 유동비율은 SM C&C와 모두투어가 200%이상으로 단기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은 SM C&C, 모두투어, 세종이 80% 이하로 나타나 장기부채 상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관광개발은 유동비율이 20% 이하이고, 부채비율은 200% 이상으로 장단기 부채 상환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동성 비율 중 총자산회전율은 모두투어, 세종이 0.98과 0.79로 타 여행사에 비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롯데관광개발과 SM C&C는 0.20과 0.45로 자산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채권회전율은 롯데관광개발이 타 여행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회전율(101.11)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레드캡투어가 17.97, 모두투어가 9.05로 매출채권의 자금회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제7권 제3호, pp.121-140, 2005 겨울.

- [3] 박정식.신동령, 「경영분석」, 다산출판사, 1998.
- [4] 양승필, 서울지역 일반여행사의 경영분석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21권 3호, pp.97-112, 2006. 11.
- [5] 유대순.이재섭, 여행사경영분석에 관한 사례연구, 관광경영학연구, 6권, pp.101-123, 2002.
- [6] 이교영.유희경, 여행사의 매출수익 인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26권 제3호, pp.269-292, 2011. 8.
- [7] 이정규.김동욱, 「재무관리」, 홍문사, 1999.
- [8] 통계청 e-나라지표 사이트, www.index.go.kr
- [9] 한국거래소 사이트, www.krx.co.kr
- [1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이트, www.klca.or.kr
- [11] 한국여행업협회 사이트, www.kata.or.kr

저자 소개

● 노 미 현(Mee-Hyun Noh)



- 1983년 2월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사)
- 1986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1998년 6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경영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김포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관심분야> : 전산회계, ERP, 경영분석 등

참고 문헌

- [1] 김영진, 재무분석을 통한 여행사 경영혁신방안, 문화관광연구 제6권 제1호, pp. 301-317 2004년 여름.
- [2] 도미경, 관광경영분석에 관한 비교연구(INBOUND와 OUTBOUND 여행사의 재무비율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